



## 200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월 15일(목),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철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진행중이며, 특히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의 성의 있는 대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2005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로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농민중심적인 양정제도 개선 및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 추진 ▲생산자와 소비자 권의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개혁 ▲수입농산물 검역체계 및 국내 제도 개선 ▲농업통상협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농민참여 보장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농업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피감기관의 모니터링 작업을 전개하여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평가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 쌀협상 비준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농연을 비롯한 7개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날치기식 비준안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희생대책의 근본대책 없는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쌀 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강행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회견문에서 서정의회장은 "지난 4월 쌀협상 결과 발표 후 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면합의 급속협상 등 쌀협상 전략과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전혀 개선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준안 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일 농림부 발표 결과 쌀 한가마의 가격이 작년보다 5.8%나 하락하는 등 현재 농촌에서는 쌀값 폭락의 총체적 위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상정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방침이다.



## 전북 농특축산물 큰 장터



농업인들에겐 새로운 판로를, 도시민들에게 신토불이(身土不二) 건강을 안겨줄 한마당으로 전라북도연합회는 '제2회 전라북도 농·특·축산물 명품 큰장터'를 2005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8일(목)부터 13일(화)까지 6일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 직거래장터에서 개최했다.

한농연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부, 전라북도,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농산물 홍보관, 판매관, 농경문화체험관, 향토음식관과 함께 시·군의 날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로 전북의 청정 농·특·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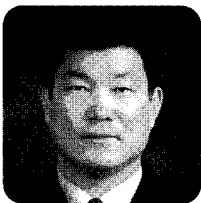


## 연기군 농특산물, 서울서 직판행사

연기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12일~16일까지 서울 노원·강남구 일원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번 농산물 판촉행사는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한농연연기군연합회 소속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연기군 김정기 회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구 대치동 주민들은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연기군 농산물 직거래 판촉행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 김수만 한농연강원회장-춘천 KBS 토론회 참석



김수만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은 15일 춘천KBS가 주최한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관한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진쌀, 수입김치 등이 불분명한 유통경로로 우리 식탁이 오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마련된 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